
전북농촌 여성노인 A의 생애구술에서 드러난 삶의 원동력

An Autobiographical Narrative Interview Study on Life-Driving Forces of A, a Female Farmer from Chonbuk Rural Area

오마리아*, 김하나**
전주교육대학교 영어교육학과*, 대원외국어고등학교**

Maria Oh(mariaoh@jnue.kr)*, Hana Stella Kim(onekim7@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전북농촌에서 평생 살아온 여성노인 A의 삶의 주제를 찾아본 생애구술사 연구이다. 약 40여회의 면담에서 드러난 A 삶의 주제는 본인의 자율학습과 자식교육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인데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는 어려서 야학당에 다니며 공부를 했다. 둘째, 일곱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 농사를 짓고, 가마니 짜기, 삼베 짜기, 누에치기 등을 하고, 농산물과 해산물을 팔고, 쌀계의 계주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셋째, 아들교육이 우선되어 딸들 교육은 어려웠으나 누에가 크면 팔아서 갚는다고 “의상입학”을 시키기도 하면서 어렵게 이어갔다. 동시대 많은 여성노인이 교육기회박탈에 아쉬워하기만 할 때 본인과 자녀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A의 삶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사회변화의 힘이 개인의 능동적인 노력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비슷한 삶의 주제를 가진 이들의 구술생애 연구가 활성화 되어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농촌 여성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중심어 : | 여성노인 | 농촌 여성 | 여성사 | 노인의 삶 | 생애구술 |

Abstract

This autobiographical narrative interview study aims at exploring how A, one Korean 82-year-old female farmer strived vigorously to learn by herself and to teach her children (4 boys and 3 girls) despite the fact that she was not afford to pay tuitions on time. From 40 times of interview-data three major findings emerged: (1) A learned how to read Korean Japanese and Chinese characters and how to calculate at a free-of-charge teaching center although her father didn't approve of her learning; (2) A tried very hard to earn money inside and outside home to support her children's education, organizing many mutual fraternity meetings to seek mutual financial support, selling mostly farm products as well as farming almost all day and everyday; (3) Although it was so hard to educate three daughters, A was proud of the fact that she was able to put her second daughter to a high school with a promise to pay her tuition later. Som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added.

■ keyword : | Elderly Woman | Life History Method | Woman from Rural Area | Old People's Lives |

* 본 연구대상자 A의 젠더 불평등 경험과 극복에 대한 연구가 '미디어, 젠더 & 문화' 12호에 게재됨을 밝혀둔다.

접수번호 : #090806-006

심사완료일 : 2009년 09월 08일

접수일자 : 2009년 08월 06일

교신저자 : 오마리아, e-mail : mariaoh@jnue.kr

I.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인 인구 중에서 여성노인 인구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노령의 여성화현상 (feminization of old age)이 나타나면서 여성노인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해 지고 있다. 그런데 여성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즉 나이가 들었고 여자라는 점 때문에 교육배경이 낮고 경제 여건이나 심신의 건강이 나쁜 사회적 약자라는 입장을 강조한 논문들이 대부분이다[1][2]. 이들 논문들은 대부분 설문조사 결과를 처리하면서 여성노인의 목소리를 하나의 비교변수로 치환하여 통계 처리되었기 때문에 여성노인 개개인의 현황을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한 농촌 여성노인이 주체적으로 경험한 인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 농촌 여성노인이 주도적으로 삶을 운영하는 동안 이 여성노인의 삶을 추진해온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본 연구과제는 한 농촌 여성노인이 어떻게 스스로 교육받았는지, 어떻게 자녀교육비를 조달하였는지, 또 어떻게 딸들을 교육시켰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II. 선행연구

최근 한국에서는 노인인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여성노인 인구에 대한 연구도 많아졌다. 이들 국내 여성노인에 대한 연구는 빈곤노인여성이나 독거여성노인 등 특수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빈곤노인여성에 대한 연구로 남정림 (1992)[3], 김미혜 (1998)[4] 등이 있는데 여성으로서 평생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불이익을 받았는데 노년에 이르러 평생에 받았던 불이익의 결과로 빈곤하게 살게 된다는 빈곤여성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저소득 조손가정의 할머니에 대한 연구에서 김혜선(2009)은 이들의 손자녀 양육체험을 질적 연구 방법으로 조사하였는데 결과는 대부분 부정적이다[5].

독거노인에 대한 연구로는 정혜정, 김태현, 이동숙 (2000)이 한국에서 여자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었던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혼자 살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다가 급기야는 매우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등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6]. 유광수, 박현선 (2003)은 독거노인과 가족동거노인의 건강상태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7]. 이에 따르면 신체적 건강 상태는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양호한 편이었으나 가족동거노인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상태가 독거노인 상태보다 양호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정혜정 외(2000)의 연구도 독거 여성노인의 경우 교육수준, 경제와 건강상태, 부양만족도나 세대 간 결속도가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배우자 사별 여성노인을 연구한 전길양, 김정옥(2000)은 여성노인의 자기 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도가 높을수록 배우자 사별 후 적응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사회적 지지망이 있는 독거노인이 없는 독거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9]. 한국 사회통념상 노인들의 네 가지 고통이라고 일컫는 사중고, 질병, 빈곤, 고독, 무위가 정말 여성노인에게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되는지 조사한 김미령(2009)에서는 사중고가 모두 여성노인들에게 스트레스인지 요인이 되며 그 영향 정도는 고독감, 만성질환, 경제적 고통, 역할 없음의 순이었다[10]. 박기남(2004)는 춘천시 동지역 독거 여성노인 10명의 생애구술사 연구에서 이들이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무능하거나 가족으로부터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한정적이지만 자립적이고 가족들과 어느 정도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11]. 안진 (2006)도 빈곤여성들의 생애사를 연구한 결과 한정된 틀 안에서 열심히 살아온 이들이 빈곤여성들이라고 밝히고 있다[12]. 이상과 같이 여성노인 연구는 대부분 여성노인 집단 중에서도 더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빈곤여성 노인이거나 독거 여성 노인들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노인이 된 현 시점까지 주어진 한계 내에서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면서 가족과 유대감이 돈독한 여성 노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는 이런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평생 동안 자식들 일곱 남매를 훌륭하게 교육시키고 82세 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전북 농촌지역 여성노인의 생애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III. 연구방법

1. 구술생애사 연구

사회과학적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소수의 대상자를 심층 연구하는 질적 연구방법론 중에서 생애사연구법을 택하였다. 한 80대 전북지역 농촌여성이 평생을 이어온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개인의 모든 언행과 행동을 평생 동안 지켜보고 관찰하며 기록할 수 있는 전 생애관찰기록법이 좋겠으나 실행이 불가능하기에 차안 책으로 이 개인이 스스로 말하는 자신의 삶은 어떠한지 들어보는 것이 생애구술 연구법이다. 연구자가 질문하면 질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기초하여 연구 대상자가 대답하는 생애구술 연구법은 한 80대 여성노인이 기억하는 자신의 인생에서 그 삶을 평생 이끌어온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기에 매우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면담 대상자 A

본 한 개인이 평생을 지탱해온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알아본 연구에서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간의 공감대(rapport)형성은 중요하다[13]. 왜냐하면 연구대상자가 평생동안 벌어진 많은 일이나 경험들을 모두 다 말할 수 없으며 우리는 누구나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동일한 사건을 달리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14]. 이렇게 공감대 형성이 생애사 연구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의 연구자중 한 명이 연구대상자의 친손녀라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본인의 생애를 친손녀에게 들려줄 때는 매우 진솔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자 A는 1928년 음력10월15일 전북 김제시 답십리(가명)에서 아버지 B와 어머니 C의 3남4녀 중

둘째딸로 출생하였다. 만 16세가 되던 해 전북 김제면 대풍리(가명)로 시집 온 후 평생 동안 이 마을에서 밭다섯 마지기(마지기란 한말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면적을 일컫는 말인데, 보통 논은 200평, 밭은 300편을 한 두락 혹은 한 마지기라고 한다)와 논 열 마지기를 경작하였다. A 평생 동안 언제나 최소생활비를 제외한 가게수입 일체를 교육비로 충당해도 언제나 교육비는 모자랐다. 어려서부터 동네 어른들로부터 총명하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으며 이런 총명함은 면담 수행 시까지도 이어져서 마을 사람들이 A에게 마을과 김제시 사이를 운행하는 버스시간을 물으러 오곤 하였다. 70대 주민 약 50명이 사는 대풍리는 1960년대 중반에 전기가 들어온 후 지금까지 거의 변화가 없는 낙후된 농촌 마을이다.

3. 자료수집

본 면담은 2008년 1월 약 두 주간과 2009년 1월과 2월에 걸쳐 A가 손녀인 연구자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총 40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매번 면담은 A의 몸 상태에 따라 한 번에 약 30분에서 한 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평생 농사를 짓느라 허리가 많이 불편했던 A는 면담자료 수집을 하는 동안에도 거실 소파에 누워서 대답하였다. 연구자가 A의 일생 전반에 걸쳐 연대기 식으로 묻고 A가 대답하는 식으로 면담이 이루어졌다. 처음 질문이 나온 후 A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는 A가 말을 다 할 때까지 들었고 A의 응답이 짧을 때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 즉, 연구자는 A의 탄생부터 전 일생에 걸쳐 연대기적으로 A가 무얼 했는지 묻고 A는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14-16]. 생애사는 ‘일반적 생애사(general life history)’와 ‘주제 중심적 생애사 (topical life history)’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14]. 본 연구 초기에 연구자들은 일반적 생애사연구를 염두에 두었으나 면담이 진행되면서 A 삶의 매우 중요한 주제에 맞춰져서 주제 중심적 생애사연구로 진행되었다. 이런 연구 틀의 변화는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자연스럽게 일어났으며 면담 초기에 예상했던 일은 아니다.

4. 연구자료 분석

생애사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리브리크, 투발마쉬아와 지버 (Lieblich, Tuval-Mashiah and Ziber, 1998)는 생애사 분석방법으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17]. '통합적인 내용분석(holistic content approach)' 접근법은 한 개인의 생애에서 중요한 주제에 대해 알아보는 방법이고, 여러 명의 생애사에서 공통된 테마를 도출하는 것은 '범주적 내용분석(categorical-content approach)'이다. 여러 사람의 생애사에서 공통되는 구조 분석에 초점을 두는 것은 '통합적 형태(holistic form)'이며 '담론 분석(discourse analysis)'은 생애사 서술의 서사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A라는 개인의 생애사에서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았기에 '통합적인 내용분석(holistic content approach)' 접근법을 택하였다. 이 분석법에 따라 면담완료 시점에서 컴퓨터파일에 저장된 녹취록을 전부 인쇄한 후 반복되는 주제어를 찾아 녹취록 각 페이지 오른쪽에 써 넣었다. 이런 주제어 분석을 마친 후 이 주제어를 모두 모아 소주제와 대주제를 분류하였다. 주제간 상충되는 점이 발견될 때는 면담자료를 여러번 다시 읽어 면담 대상자가 본인의 삶의 주제에 대해 무엇이냐 정의내리고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 중에 새로운 소주제나 대주제가 도출되곤 하였다. 이런 면담 데이터 분석은 A인생의 원동력을 알 수 있는 대주제 소주제를 모두 찾을 때까지 여러번 반복하여 수행되었다.

5. 삼각검증기법

질적연구에서 연구주제가 되는 현상을 보다 더 정확히 연구하기 위해 삼각검증기법이 활용된다. 본 연구는 특히 한 개인의 삶에 대한 면담연구라서 주요 자료수집 방법이 한 가지이기에 연구 진행과정과 그 내용, 연구 결과의 신뢰성(trustworthiness)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삼각검증법 활용이 필요하다 (Schwandt, 1997)[18]. 본 연구에서는 삼각검증법이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 우선 면담 자료 이외에도 A 삶의 주제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편지나 주소록 등 A가 쓴 글이 있는 문헌자료를 보관하여 자료수집 방법의 다양화를 시도하였다. 이런 자료들을 통하여 연구자들은 A가 어떻게 한글이나 한자등을 익히고 활용하는지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삼

각검증법은 두 명의 연구자가 본 연구에 참여하여 면담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하였기에 연구자 한명이 연구한다면 가질 수 있는 편견을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하였다. 세 번째로 2008년 처음 면담이 실시된 후로 2009년에 다시 면담이 이뤄지는 동안 면담데이터 자료가 풍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Denzin(1989)[16]나 Lincoln and Guba(1985)[19]등이 권하고 있는 삼각검증기법 중에서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 두 명 이상의 연구자 참여, 긴 자료수집 기간 등이 활용되었다.

IV. 연구 결과 및 분석

1.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닌 야학당

A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처음 면담날에 연구자가 A의 어린 시절에 주로 무얼 했는지 물었을 때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는 A의 대답에서 드러났다. A는 본인이 요즘 아이들처럼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실을 제일 먼저 언급하였다: "생각나는 거는 뭐 그때는 어렸을 때는.. 지금은 학교를 다녀... (나는) 학교도 안다녔지. 그니까 오다가다 그렇게 주워듣지 그때는 (학교서는) 못 배웠으니까...". A의 삶에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아쉬움이 묻어난 답변이었고 A의 이런 아쉬움은 평생에 걸쳐 가난한 농촌 살림에도 불구하고 온갖 힘을 다해 자녀들을 꼭 교육시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어졌다고 보인다. 한 경혜(2005)에서 면접초기에 생애사 연구 대상자가 얘기하는 사항이 종종 그 사람의 생애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된다고 하였다. A의 경우에도 제일 처음 면접에서 언급한 본인의 교육받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이 본인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원동력인 자녀 교육에 대한 신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연구자는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는 A에게 어떻게 한글을 쓰거나 쌀계를 조직하여 왕주노릇을 할 수 있었는지 물었다. A는 작은아버지의 도움으로 "가가거겨"를 익힌 후에는 혼자 오며가며 눈에 띄는 한글을 혼자 읽어 보는 식으로 한글을 익혔다고 했다. 그러다가 13,4세 경에 여름 방학 석 달 동안 '영선당'이라는 야학당에서 선생님과 급우들과 함께 한글과 일본어 셈하기를 배울

수 있었다. 하지만 계속 배우고 싶었던 A의 소원과 달리 야학당교사가 없어지면서 야학당 문을 닫게 되어 야학당에서 하던 공부를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 야학당은 작은 아버지가 소개했는데 언니나 여동생은 다니지 않고 A 혼자만 오전에 청소하기나 아침, 점심, 저녁 차리기 등 맡은 집안일을 빨리 끝내고 점심을 아주 간단히 먹은 후 먼 길을 걸어 야학당에 가서 수업을 받고 야학당서 가까운 작은 아버지 집에서 잔 후 다음날 일찍 동이 트자마자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맡은 집안일을 오전에 마치는 식으로 야학당에 다녔다. 아버지가 특히 못 가게 했으나 몰래 야학당에 다니면서 한글, 일본말, 간단한 한자쓰기와 셈하기를 배울 수 있었다. 여자로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그 당시 상황에서 다른 여자 형제들과 달리 A는 배울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고 야학을 통한 배움의 기회가 왔을 때 혼신을 다해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안 가르쳐...그런데 큰할머니 작은할머니도 (야학에 같이 가자 해도) 안가”서 결국 A 혼자 먼 길을 걸어 야학당에 다녔다. 다른 여자 형제들이 동행하지 않는데도 혼자 야학당에 다니면서 배우려고 노력한 A의 교육에 대한 열의와 삶에 대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다음은 A의 말이다:

“야학에 다니는 것을...시집가면 (속상한 얘기를) 펜지 쓴다고...아버지가 못 가게혀. 어머니는 냅두라고 그러지...몰래 내가 갔어. 저녁때(저녁밥)는 후딱후딱 해놓고는 가. 가고는 작은집서 자. 자고는 식전에는 언동만 트면 와. 낮에는 일해야 하고, 저녁때는 못 가게 허니까 아침 일찌거니 와야지. 그래서 그거 해서 한글, 일본말, 한자쓰기, 셈하기 같은 걸 조금 배웠당게...그때 계속 배웠으면 솔찬히 배웠을 텐디, 한 석 달하고 나서 (음력)7월에 찬바람 불 때 (야학당이 문을 닫고) 안 해 버렸어. 그때 1년은 더 배웠어도 더 뻔 것인디...”.

이상과 같이 A는 결혼 전에 한글, 일본어, 한자쓰기, 셈하기 등을 야학당에서 약 석 달 동안 익힌 뒤 혼자 평생 동안 조금씩 조금씩 독학하면서 익혔다. 딸들은 시집보내면 그 뿐이기에 시집 간 후 시집에서 속상한 얘기를 편지로 써서 친정으로 보내면 서로 좋을 일이 없다고 아예 한글을 가르치지 않았던 시대에 다른 여자

형제들은 감히 배울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A는 배우고 싶은 향학열로 인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야학당에 다니게 되었다. 이와 같이 향학열에 불타던 A는 야학당이 문을 닫으면서 공부를 더 할 수 없었고 “그 당시의 법이” 여자들은 공부를 할 수 없어서 큰 아쉬움을 느꼈다. 이런 아쉬움으로 인해 결혼 후 시댁이 “죽을 끓여 먹는다” 매우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자식들 교육을 위해 맹진하는 삶을 살게 된다.

2. 자녀 교육비 조달에 힘쓴 일생

“일본의 처녀공출을 피해” A는 만 열여섯 때 고향서 그리 멀지 않은 대풍리로 시집을 간다. 친정에서는 끼니로 죽을 먹지는 않았는데 시댁에 와보니 죽으로 끼니를 대신할 때도 있을 만큼 가난했다. 이 무렵 한국국민은 전체적으로 최극빈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해방 무렵 한국 인구의 80% 정도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고 기본적인 의식주생활이 너무나 열악하였다. 1957년 한 조사결과에서는 한국 농민의 절반 정도가 하루에 세 끼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하루 한 끼 이상을 풀뿌리나 나무껍질로 배를 채우곤 했다고 한다 (한국역사연구회, 1988)[20]. A의 경우 밥을 풀뿌리나 나무껍질로 대신해야 할 극빈 생활은 아니었으나 일곱이나 되는 자녀들을 모두 여유롭게 교육을 시킬 형편은 전혀 아니었다. 하지만 어떻게든 자녀교육을 시킬 결심을 한 A에게 자녀교육비 마련은 삶에서 가장 큰 숙제였다. 쌀은 말할 것도 없고 계란, 보리, 콩등 잡곡과 누에를 키워 파는 한편 쌀게도 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쌀을 봄에 빌려줘서 이자와 함께 가을에 받기도 했다.

우선 농촌가정인 A네 가정에서 교육비 마련의 가장 큰 재원은 쌀이었다. 쌀은 일 년간 양식이면서 동시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팔면 현금이 되어서 교육비로 활용되었다. 현대적인 은행이 없던 때라 봄에 식량이 필요한 사람은 쌀을 빌려갔다가 가을 추수 후에 돌려주기도 했다. 이때 이자로 주는 쌀은 그해 경작 상황에 따라 달랐는데 때로는 100%이자를 내기도 해서 A가정에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 다음은 A가 한 말이다:

“가을에...쌀을 다 안 찌(나락을 도정하여 쌀로 만든다는 말)다 이어놓지. 한쪽으로 딱 해놔. 대문으로 그

놈을 지푸라기도 이어놓지...지금 같으면 방앗간에나 놓고 그러지. 그 땐 몇 가마니씩 먹고 살려면(전북지방 사투리로 '농산물을 판다'는 것은 '농산물을 산다'는 뜻이고 '농산물을 산다'는 말은 '농산물을 판다'는 뜻이다)퍼다 쩌. 그리고 이어놔. 또 그러지...그때는 저금할지도 몰랐어. 지금은 돈을 예금해놓지. 옛날에는 그런 생각도 못해. 내놔다가 살려면 사고 그랬지...봄에 쩌가지고 없는 살림에선 빚 얻어가고 했지..옛날에는 봄에 열 말 주면 가을에 스무 말도 받았어.”

A 가정의 두 번째 주요 재원은 쌀뿐만 아니라 보리나 콩을 비롯한 잡곡과 계란, 누에고치등 농산물이었다. 그런데 이런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식을 설명하던 A는 비닐이나 비료를 쓰는 현대식 농사법에 비해 옛날에는 사람 손으로 일일이 잡초 제거를 하는 등 전통적 농사법을 사용하여 농사짓기가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다음은 A의 말이다.

“그 전에는 갈아서 슈아먹고. 고추도 예전에는 그냥 심었냐, 갈지(모종심기를 하지 않고 씨앗심기를 했다는 뜻). 또 슈아내서 고추장하고 그러지...아휴..보리밭도 매고 보리도 갈아놓고... 한번 (잡초뽑기가) 끝나면 두 번 세 번 더 해야지. 옛날에는 발전이 안 되가지고 엄청 힘들었지. 다 시대가 그렇긴 한데...지금은 그냥 비닐 쓰고 약 쓰고 허지만... 옛날에는 비닐 쓰고 하간?...쌀이나 이제 계란 같은 것도 남이 먹을 수 있으면 가져다 팔어...쌀도 두말씩 가져가. 콩 같은 것도 많이 생기면 가서 사. 밭에다 다 콩 같은게.. 두말씩 서너 말씩 이고 가서 사...시장에 자주는 가간?... 그런건 어쩌다...하지...그.. 돈되는 거는 쌀, 콩, 계란하고. 누에고치를 팔어...몇 근 해서...일등이면 돈 나오고 이등이면 좀 싸고 그러지. 꼬치 사는데가 있어. 가면 이제 일등이건 이등이건 검사를 때리지.”

세 번째, 액수가 큰 교육비는 쌀계에서도 나왔다. 전적으로 계원끼리의 신용에 의지하여 조직된 쌀계는 조직원을 구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계주를 맡은 A는 평생 쌀계를 여럿 조직하였는데 한 번도 신용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다고 한다. 동네 사람들끼리 계원이 되기 때문에 매일 보는 사람 중에서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을 골라 계를 조직해야 하는데 A의 판단

력이 매우 출중함을 알 수 있다. 젊은 시절에 A는 왕주(계주)로서 계를 운영하는 방법을 소상히 알고 있었으나 가족 내 학생들이 없어지면서 큰돈을 쓸 일이 없어졌고 자연히 쌀계를 할 일이 없어져서 쌀계 운영법을 상세히 기억하지는 못하였다. 다음은 A의 말이다.

“일곱명씩 짜지...근데 (내가 짠 계원) 도망가거나 한번도 그러들 안 했어. 그래서 끝번은 안들을 사람 안 드는데 끝에는 더 타거든. 더 타고 오래 있다가 탈 사람은 끝번 찾는 사람 있고...얼마씩 내놓으면 오십 짝을 만들어. 그럼 왕주가 열 짝을 내놓고 저사람도 얼마씩 내놓. 해마다...아이고 다 잊어버렸어...시방 그것이 다 없어져서 아는 것을 다 잊어버렸어.”

A가 항상 아이들 교육비 마련에만 힘을 쓰고자 한 것에 비해 여윌돈이 생길 때면 남편은 농사지를 땅을 더 마련하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이때마다 A의 의견에 따라 자식교육에 돈을 쓰고 땅을 산적은 없었다.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A의 의견대로 땅을 사두지 않은 것은 A 스스로 참 다행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농사지를 자식이 없기 때문이다. A가 한 말을 직접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할아버지가 언젠는 한 번 그러시데. 거서기, 나도 아들 안 가르치면 논을 몇 평을 샀다 그러대. 근데 땅 사면 뭐다. 그러지. 아들(아이들) 가르쳐야지 땅 사면 뭐 더냐고...지금 누가 지을 놈도 없고. 아무도 농사 질라고도 안하고...내 아이 학교 가는데 돈이 모지라는데 땅 산다고 허간?”.

대풍리 마을 전체에서 큰 아들을 뺀 아들들은 모두 대학을 보내고 그 중 한 명은 이학박사이며 큰 딸을 제외하곤 딸들도 모두 고등학교를 보낸 가정은 A가정뿐이었다. 그러니 마을사람들은 A에게 칭찬과 질시를 동시에 보내면서 한 말 중에 A는 “이 집은 밤에 도둑질하고 낮에는 일하는가 보다”고 한 말을 여러 번 언급하였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뺨 한 살림살이인데 학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지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한 말이지만 한편으로 A가 그만큼 힘들게 학비 마련을 했다는 반증인 것이다. 자식들 학비 마련에 대해 마무리 짓는 A의 언급을 다음과 같다:

“큰아빠(큰아들)가 도와줘도 (큰아들이 고등학교 줄

업 후에 바로 초등교사임용고사에 합격하고 초등교사로 재직하면서 월급의 상당 부분을 A가족 생활비 및 자녀교육비로 충당)... 옛날에는 형편 따라 미역도 팔고 그렸어. 학생이 몇이나... 큰 아빠가 월급 갖다 줘도 고등학교랑 대학교 등록할 때 맨날 돈이 모지라. 돈을 꾸. 꾸야 혀. 그러면 돈을 며칠 있다가 어디선가 받으니까 대충 갈무리 하고... 그렇게 저렇게 했지 뭐... 쌓아둔 게 있어서가 아니여”.

3. 후회스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한 딸들 교육

아이들의 교육에 혼신을 다해 노력했지만 딸들 교육은 A가 소원한대로 시킬 수가 없었다. 작은 딸은 A의 기지로 “외상입학”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을 시킬 수 있었으나, 아이들이 많다보니 상급학교 진학을 같은 해에 동시에 하게 되는 아이들이 있었고 항상 아들들을 위해 딸들은 희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큰 딸이 중학교 입학할 해야 하던 해 셋째 아들이 태어나면서 아들들이 미래에 쓸 학비를 걱정하느라 중학교를 보낼 수 없었는데 이 딸이 두 해에 걸쳐서 울면서 중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는 A도 같이 따라서 울곤 했다. 다음은 A의 말이다:

“큰고모가 울면 할아버지는 못 가게하고... 그러면 나도 울고 그랬어...중학교라도 갔어야 하거든. 그런데도 중학교도 안보내고... 큰고모만 중학교도 못갔지... 그니까 (남자 형제들) 새새 (딸이) 있으니까... 남자애들이 계속 학교를 가니까 중학교를 못 넣겠더라고... 큰고모랑 동갑인 뒷집 딸은 중학교를 갔어. 그러니까...올다가 올다가 (동네 아이들이) 막 중학교 들어갈 때마다 또 울고 그랬지.”

셋째 딸이 1984년 지방대학 입학시험을 합격했을 때는 그 동안 가계 수입원의 큰 몫을 담당하던 큰 아들이 서울로 이사하면서 주말부부로서의 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어 가계수입에 막대한 지장이 생겼다. 이에 따라 셋째 딸 K의 대학 입학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같은 해 서울에서 남자 형제 G와 J의 식사 등을 돌보던 둘째 딸 H가 결혼하면서 G와 J의 식사를 돌볼 사람이 필요해 졌고 취직자리도 알아볼 겸 K는 서울 집으로 가게 된다. 이 후 K는 대기업 유통업체에 취

직해서 다니면서 결혼 전까지 서울 집에서 G와 J 뿐만 아니라 같은 집에 기거하던 사촌남자형제 N과 O의 식사를 담당했다. 셋째 딸의 대학 진학에 대해서 큰 아들과 의논했다는 A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학교를 다 그 때 그냥 보냈으면 그대로 갔을 것이여, 또. 못갈 것 같애도 보내면 가더만. 그 때 할아버지는 못 보내게 혀..큰아빠가 그때는 서울로 가게 되야...궁게 가면 나도 없고 가르치는 게 힘들웅게 그냥 (K가) 고등학교만 마치면...일찍이 시집이나 보내자고 혀대. 그래서 일찍 시집보냈잖아”.

첫째 딸과 셋째 딸 K가 경제적 이유로 상급학교 진학을 못하게 되었을 때를 회상하던 A가 회화에 찬 목소리였으나 “어거지를 써서” 보낸 둘째 딸 H 고등학교 입학에 대해 얘기할 때는 매우 자랑스러운 목소리였다. 둘째 딸이 고등학교 입시에 합격하던 1974년 대입 재수를 한 둘째 아들 G도 대학에 가게 되었다. 대학 입학금과 고등학교 입학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없었던 A는 G의 대학합격공고를 확인하러 가기 전에 G가 합격하면 H의 고등학교 입학은 포기한다고 남편과 약속을 했었다. 하지만 G의 대학 합격을 확인하는 순간 A는 H의 고등학교에 달려갔다. 고등학교에 집안의 경제 사정을 소상히 설명하고 나중에 입학금과 등록금을 낸다고 하고 H를 외상입학을 시키게 된다. 남편은 어떻게 계속 학비를 낼 수 있냐고 등록을 못하게 했지만 A는 H의 고교입학을 추진시킨 것이다. 다음은 A의 말이다

“외상등록해서 H를 넣었어. 고등학교는 되었는데 못 넣웅게...그냥 궁게 인자 등록을 가서 혀봐...나중에 갚는다고...누에 키워갖고 갚는다고...시방 같으면 안 될 것이네..할.아버지 몰래 H학교 가서...내가 등록을 하고 온게...인제 해냈으니까 어쩔 수 있간? 할아버지도 포기했제...누에 키워갖고 준다고...근데 누에 키우면 또 돈이 모지래...큰 성(형) 월급타고 그래도 모지라...돈을 꾸지...나중에 갚어.”

이상과 같이 A는 세 딸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들을 더 교육 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후회했지만 둘째 딸을 고등학교에 외상으로라도 입학시킬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남편이 워낙 완강해서 큰 딸의 중학교 진학을 추진시키지 못했으나 둘째 딸 고등학교는

남편 뜻과 달리 외상으로 등록을 시켰고 일단 입학한 딸을 남편도 어찌지는 못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A는 자녀교육에 관한 한 남편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중학교를 못 보낸 큰 딸에 대해 더욱 후회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때 중학교라도 보냈어야 하거든. 그런데 그 전에는 그냥 할아버지는 절대 아들은, 며시매들은 어찌라고 그람서...안 보낸대. 지금 같으면 어거지 써서 보냈지. 그때만 해도 젊으니까 어거지 쓰질 못했지. 군산 고모도 고등학교 안 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싸워서 보냈지...그때 어거지 써서라도 큰고모를 중학교 보냈어야 했어...”. 빈한한 가정형편에 비해 딸교육에 욕심을 부리는 자신을 “어거지”쓴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참 흥미롭다. A의 자녀교육을 시킬 무렵 타인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었던 자신의 교육열이 남달랐다는 것을 본인도 어느 정도 인정한 표현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평생 동안 자신과 자녀의 교육을 위해 힘쓰는 한편으로 본인의 남다른 교육열이 타인의 눈에는 별스럽게 보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본인의 행동과 의견을 타인의 눈을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A의 현명함이나 사리분별력이 드러난 언급이라고 여겨진다.

V. 결론 및 제언

열악한 농촌벽지의 궁핍한 살림 중에도 자식들 4남3녀 모두를 훌륭하게 교육시킨 A의 평생을 아우르는 주제는 자식들 교육비 마련이었다. A는 평생 농사짓기에 노력하는 한편 농산물 판매나 쌀계운영 혹은 쌀빚을 내 주기도 하면서 7명 자녀들의 학비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A는 대부분의 여성노인연구에서 나타나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홀로 설 수 없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노력해온 능동적인 삶의 주체자이다. 천혜숙(2001)이 '농촌여성 생애담의 주제와 생애인식 양상'에 대한 연구에서 농촌노인여성들은 그 동안 농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척박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거 말로 다 못한다”(천혜숙, 2001: 263)고

하였다[21]. 그만큼 여성차별과 노동 강도가 심했다는 뜻이고 이런 힘든 농촌여성으로서의 환경이 A를 비켜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촌여성들이 수동적 태도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인내해 가지만 A는 본인의 학습이나 자식교육을 생의 목표로 삼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항상 노력하였다. 기존의 여성노인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와 달리 농촌여성노인 A의 삶이 미래지향적이고 주체적이며 능동적이라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발견이다. 한 개인이 주어진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동안 일종의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의문 없이 정해진 사회의 규칙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하지만, 한 사회를 보다 더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한 개인이 능동적으로 불합리한 사회 규범 등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데에서 나온다. 본 연구의 결과로 드러난 A 삶의 주체처럼 주어진 환경을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삶의 태도나 주제를 가진 농촌여성노인들에 대한 연구가 보다 더 활발히 이뤄져서 이들의 삶이 한국의 현대사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정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1] 이가옥, 이현송, 김정석, “노년기 삶의 질: 지표개발과 평가”, 세계 노인의 날 기념 제 6회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2000.
- [2] 정경희, “여성노인의 삶의 질: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2, pp.43-52, 1997.
- [3] 남정림, “여성노인의 빈곤화 원인과 정책에 관한 여권론적 접근”, 여성연구, Vol.10, No.4, pp.85-110, 1992.
- [4] 김미혜, “여성노인의 빈곤화 원인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소고”,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정진영 교수 정년퇴임기념 논총:한국사회사업의 쟁점과 과제, 1998.
- [5] 김혜선,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의 손자녀 양육체험이 조모의 삶에 미치는 의미”, 노인복지연구, 43, 2009.

[6] 정혜정, 김태현, 이동숙,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Vol.20, No.2, pp.49-70, 2000.

[7] 유광수, 박현선, “독거노인과 가족동거노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Vol.23, No.4, pp.163-179, 2003.

[8] 전길양, 김정옥, “배우자 사별노인의 자기 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Vol.38, No.1, pp.155-170, 2000.

[9] 김기태, 박봉길,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사회 지지망-지역복지관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Vol.20, No.1, pp.153-168, 2000.

[10] 김미령, “여성노인 사중고 (빈곤, 질병, 고독, 무위)의 스트레스인지 영향 및 대처지원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43, 2009.

[11] 박기남, “생애구술을 통해 본 독거여성노인의 삶”, 페미니즘연구, 4, pp.149-194, 2004.

[12] 안진, “빈곤여성노인의 생애사를 통한 삶의 이해”, pp.127-160. 젠더연구의 방법과 사회분석, 서울: 도서출판 다해, 2006.

[13] 유철인, “생애사 연구방법 : 자료의 수집과 텍스트의 해석”, 간호학 탐구, Vol.7, No.1, pp.186-195, 1998.

[14] 한경혜, “생애사 연구를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한국노년학, Vol.24, No.4, pp.87-106, 2004.

[15] Atkinson and Robert, The Life Story Interview. CA: Sage, 1998.

[16] K. N. Denzin, Interpretive Biography. CA: Sage, 1989.

[17] A. Lieblich, Truval-Mashiach, R., and Zilber, T. Narrative Research: Reading,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aks, CA: Sage, 1998.

[18] T. A. Schwandt, Qualitative Inquiry: A Dictionary of Terms. Thousand Oaks, CA: Sage, 1997.

[19] Y. Lincoln and E. Guba,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1985.

[20] 한국역사연구회,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서울: 역사비평사, 1998.

[21] 천혜숙, “농촌여성 생애담의 주제와 생애인식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 pp.227-267, 2001.

저자 소개

오마리아(Maria Oh)

정회원



- 1990년 5월 : San Jose State University in California, USA. 언어학석사
- 2002년 2월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USA, 외국어교육학 박사

▪ 2003년 9월 ~ 현재 : 전주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초등영어교육, 멀티미디어 활용 영어교육, 여성노인, 노인복지

김 하 나(Hana Stella Kim)

준회원



- 2007년 3월 ~ 현재 : 대원외국어 고등학교 학생

<관심분야> : 여성노인, 노인복지